3강 욕망하는 생산의 세 가지 종합 1

(1교시)

◆ 종합과 생산의 종합

※ 학습목표
종합을 이해하고 생산의 종합을 이해한다.

▲ 오르가즘 기계
오르가즘기계는 성적 환상이 가미된 가상섹스를 실현시킬까요, 아니면 환상을 배제한 물리적인 섹스만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리고 오르가즘 기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성형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성적 환상을 인공적으로 창출해서 섹스 할 수 있다면 성형산업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르가즘 기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19세기의 버틀러가 말한 것처럼 기계의 진화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밀 기술 기계들, 가상 기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탄생했고 어떠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진화할 것인지를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란 인간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은 자본주의의 환경입니다. 정밀 기술이나 과학 기술은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체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자본의 환경 속에서 진화할 위험이 큽니다. 그것은 조지 오웰이 말했듯이 빅 브라더(Big Brother)의 감시, 통제와 같은 권력의 대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기술기계(오르가즘 기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기계는 오히려 비자본주의 방식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많은 리비도의 생산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신경증을 없애는 데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 기계의 사용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피임약이라던가 성적 기구들은 오르가즘 기계와 같은 성적 기계들입니다. 사실 인간은 돈만 주면 오르가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기계(오르가즘 기계)가 완전히 다를 것처럼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닐까요?
SF 영화에서 보여 지는 로봇, 혹은 사이보그 같은 기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고대의 노예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이미 섹스 노예도 있습니다. 이미 성매매의 현실 속에는 도구적 존재인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르가즘 기계와 같은 성적 기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분석과 종합
그럼 왜 '종합'일까요? 종합은 분석과 대비되는 방법입니다. 분석이란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www.artnstudy.com

‘전체’에서 출발하여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요소를 추출하는(추상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분석은 ‘전체’를 ‘부분’들로 분절하는 작업입니다. 이 분절이 촘촘하게 이루어질수록 분절된 요소들의 산술적 합은 ‘전체’를 명석 판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 표상의 에피스테메는 분석의 방법을 통해 출현했습니다. 박물학, 일반문법, 고전경제학은 모두 표상 분석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박물학은 자연을 수, 형태, 비율, 위치를 기준으로 한 가시적 ‘특질’들로 분석합니다. 이 특질들의 산술적 합산을 통해 종과 속의 분류학적 표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일반문법은 언설을 가장 단순한 동사(be동사)로 분석합니다. 이 동사가 사물을 지시하는 양태를 분절함으로써 이름들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고전경제학은 부(富)를 화폐라는 가장 순수한 부의 표상으로 분석합니다. 이 화폐의 비례적 분절이 교환의 질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적 방법은 동일성의 질서를 수립합니다. ‘전체’ 질서는 부분들의 산술적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인식의 확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니콘은 뿔이 하나다’,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 ‘모든 자연수는 0보다 크다’와 같은 분석판단은 분석 대상(주어)을 명석 판명하게 규정할 수는 있지만 주어 속에 이미 술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종합의 방법은 ‘모든 고니는 하얗다’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진다’ ‘동량의 20도의 물과 40도의 물을 합치면 물의 온도는 30도에 가까워진다’와 같은 종합판단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식의 확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장된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보장되지 않지만.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종합의 방법은 그래서 “목숨을 건 도약”[1]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의 부분에다 다른 부분을 종합하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부분을 종합하는 과정은 매번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 보증도 어떤 필연적 인과도 없습니다. 매번 새롭게 열리는 외부의 장으로 건너 뛸 뿐입니다.

▲ 생산과 종합

그렇다면 왜 생산은 종합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생산의 과정이 표상(관념)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헤겔의 관념론처럼 관념, 혹은 표상은 매순간의 운동 속에서 자신의 전체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부분 속에서 전체가 분석될 수 있고 전체 속에서 부분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과정은 정신의 자기 실현이 아니라 물질적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고전경제학자들이 경제활동의 최소 단위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항상 분석에 의해 노동분업, 화폐, 가치 등과 같은 몇몇 규정적인 추상적, 일반적 제관계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34) 고전경제학자들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노동에 의해 산출된 가치를 화폐로 매개하여 분배하는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분석적 규정은 추상적 요소의 분석에 그치는 만큼 초-역사적입니다. 이런 분석 작업이 “총괄의 과정, 결과로서 나타나지 출발점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것의 종합으로 상승되지 않으면 인간의 노동과 가치와 화폐는 마치 자연적인 것처럼 실체화됩니다. 경제활동의 제 요소들은 최종적 결과(자본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종합되는 과정 속에서만 살아 있는 구체성을 획득합니다. 이 역사적 종합의 과정은 항상 “목숨을 건 도약”의 과정이며, 그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총칼의 필연성’에 의해 관철된 과정입니다.

---

1) 칼 맑스, 김수행 역, 『자본론』, 비봉, 2006, 136쪽. “가치가 상품체로부터 금체(body of gold)로 건너뛰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품의 결사적인 도약(salto mortale)이다.”

www.artnstudy.com

▲ 리비도의 양적 종합

그럼, 왜 무의식은 종합의 형식일까요? 그것은 무의식이 리비도의 생산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리비도의 생산은 종합의 형식을 가질까요? 그것은 리비도의 양적 특질 때문입니다.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양'으로 이해했습니다. 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칸트가 외연량(Anschauung)이라 부른 것으로 거리, 질량, 열량처럼 부분들의 연속적 합산이 전체의 크기를 규정하는 양입니다. 100m는 1m가 백번 합쳐진 것이고 100g은 1g들이 백번 합쳐진 것입니다. 이런 양은 수학적 분석에 의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www.artnstudy.com

3강 욕망하는 생산의 세 가지 종합 1

(2교시)

◆ 생산 과정의 작동과 흐름의 절단과 채취

※ 학습목표
생산 과정의 작동과 흐름의 절단과 채취를 이해한다

다른 하나는 내포량(Wahrnehmung)이라 부른 것으로 온도, 명도, 흥분량처럼 0도에서 시작하여 지각이 느끼는 정도(degree)를 일정한 간격으로 양화한 것입니다. 이 내포량은 부분의 연속적 합이 전체의 크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리비도의 양은 외연량일까요, 내포량일까요? 당연히 리비도의 양은 내포량입니다. 리비도의 양은 0도를 기준으로 그와의 멀고 가까움으로 경험되는 강도(intensity)입니다. 그 강도는 강도=0를 기점으로 긴장의 정도나 흥분의 정도로 지각됩니다. 이런 내포량은 분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만이 가능한 양입니다. 즉, 강도량은 일정한 단위로 분절될 수도 없고 합산하여 전체를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강도=0의 상태를 기점으로 하여....끌어당김과 반발의 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높아지는...열린 계열을 생기게 한다."(38) 일정한 강도의 상태는 일정한 증감의 정도나 기울기(gradient)를 가지며, 어떤 도약의 지점이나 변곡점, 혹은 문턱을 넘으면 새로운 강도의 상태로 이행하게 됩니다.

▲ 생산의 중층적 결정
이제부터 그 종합의 세 가지 양태를 살펴볼 텐데, 저자들은 그것을 생산의 접속적 종합(la synthèse connective de production), 등록의 이접적 종합(la synthèse disjoinctive d'enregistrement), 소비의 통접적 종합(la synthèse conjonctive de consomm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종합은 욕망하는 생산의 총괄적 과정의 세 가지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생산의 생산으로, 등록은 등록의 생산으로, 소비는 소비의 생산으로서 총괄적 생산 과정의 지절(支節)을 이룹니다. 이 생산의 중층적 결정 과정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참조한 것입니다. "생산은 생산의 대립적 규정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계기들도 총괄한다....한 일정한 생산은 일정한 소비, 분배, 교환과 이들 다양한 계기들 상호간의 일정한 관계를 규정한다. 물론 생산도 그의 일방적인 형태에서 다른 계기들에 의해 규정된다."(「정치경제학 비판서문」, 32) 들뢰즈-가따리는 욕망생산의 총괄적 과정에서 "생산이 곧바로 소비요 등록이며, 등록과 소비가 생산의 한가운데서 생산을 직접 결정짓는"(18) 양상을 설명합니다.

▲ 생산의 접속적 종합
먼저, 욕망 생산의 총괄적 "과정은 언제나 생산에서 새로이 시작"(「정치경제학 비판서문, 32)됩니다. 욕망기계는 흐름을 생산합니다. 흐름의 생산은 욕망기계의 부품인 부분대상들의 접속에 의해 이뤄지고 그 접속의 에너지는 리비도입니다. 부분대상(objet partiel)이란 용어는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이론에서 온 것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유아의 리비도적 충동이 '엄마'나 '아빠'처럼 특정한 인격체 전체가 아니라 젖가슴과 같은 신체의 부분을 대상으

www.artnstudy.com

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미 프로이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905)에서 프로이트는 유아기의 충동(Trieb)은 통합된 유기체나 특정한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항상 부분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부분충동이 생겨나는 관련 기관(소위 성감대)으로 입, 항문, 눈, 피부 등을 예시합니다. 이 성적 기관이 관계 맺는 대상이 부분대상(partialobject)인데, 입은 젖가슴을, 항문은 똥을, 눈은 시선을, 피부는 고통을 충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라캉은 여기에 목소리까지 첨가시킵니다.
리비도의 기계적 원리에서 성감대와 부분대상은 모두 욕망기계의 부품이며, 그 자체 기계들입니다. 입-기계는 젖가슴-기계와 접속하여 구강기의 리비도적 흐름을 생산하고, 항문-기계는 똥-기계와 접속되어 항문기의 리비도적 흐름을, 눈-기계는 시선-기계와 접속하여 관음증의 리비도적 흐름을, 피부-기계는 고통-기계와 접속하여 매저키즘의 리비도적 흐름을 생산합니다. 유아에게는 실재적 형태로, 신경증환자에게는 억압된 형태로, 도착증자에게는 인공적 형태로 작동하는 이 욕망기계는 유기체-기계나 사회-기계와 충돌합니다. 가령, 히스테리환자가 구토를 할 때 그것은 목구멍을 영양섭취 기관으로 사용할지 구강기의 욕망기계로 사용할지 망설이는 것입니다. 거식증환자 역시 자신의 입-기계를 "먹는 기계, 항문기계, 말하는 기계, 숨쉬는 기계 중 어떤 것으로"(15) 사용할지 망설입니다.

▲ 흐름의 절단-채취

욕망기계가 흐름을 생산할 때 그것은 "언제나 다른 기계와 짝을 이루고 있는 기계"(20)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짝을 이룬 기계들은 흐름을 내보내는 기능과 흐름을 절단하는 기능을 나눠 갖습니다. 젖가슴-기계는 젖의 흐름을 내보내고 입-기계는 그 흐름을 절단합니다. 물론, 젖가슴-기계는 자신의 입-기계로부터 시작하는 영양분의 흐름을 절단하여 젖의 흐름을 만든 것이며, 유아의 입-기계는 엄마의 젖의 흐름을 채취하여 자신의 식도와 연결된 영양의 흐름을 만듭니다. 흐름은 절단-채취와 짝합니다. 하나의 흐름은 그것을 절단-채취하는 또 다른 흐름과 연결됩니다. 이런 이항적 연결을 명제 형식으로 표현하면 <et…그리고…>, <et puis그 다음에…>가 됩니다. 물론 이 '그 다음에'의 접속적 종합은 논리적 종합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의 종합입니다. "연속하는 물질적 흐름"의 관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질료(hylè)입니다. 관념상으로 세계는 이렇게 연속하는 물질적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물질은 이 무한한 흐름의 절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의 관점에서 본 물질의 모습입니다. 생산이란 우주의 무한한 흐름을 절단-채취하는 과정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역시 생산을 "자연생산물을 인간적 욕구의 것으로 전유"(「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1)하는 "일반적" 과정으로 규정합니다. 마르크스가 자연적 출산은 생명력의 소비이고, 식물의 생산은 원소 및 화학물질의 소비이며, 육체의 생산은 식량의 소비이고, 생산활동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소비라고 할 때(「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22-23) 그것은 생산을 흐름의 절단-채취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생산의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산업은 더 이상 유용성이라고 하는 외면적 관계에서 파악되지 않고, 인간에 의한 생산과 인간의 생산으로서의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19) 자연은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흐름의 절단을 행하고 있는 생산자이지 인간적 생산활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흐름을 절단-채취하면서 생명을 생산하는 인간은 자연적 생산의 결과물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 혹은 산업으로서의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인간적 본질과 자연의 인간적 본질은 동일하다."(19) 그것들은 모두 생산기계의 부분대상이자 접속적

www.artnstudy.com

종합의 연결항들입니다.

▲ 분열증자의 생산 과정 작동

분열증자(schizophrène)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인간적 본질과 인간의 자연적 본질이 일치하는 일반적 생산 과정을 작동시킵니다. 분열증자에게는 자아와 외부세계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뷔히너Büchner의 소설『렌츠』에서 위대한 극작가이자 광인이었던 렌츠(1751-1792)는 "온갖 형태의 오묘한 생명과 접촉하는 것, 돌들, 금속들, 물 그리고 식물들과 사귀는 마음을 갖는 것, 마치 꽃들이 달이 차고 이지러짐을 따라 대기를 빨아들이듯 꿈꾸듯 자연의 모든 것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지복의 감정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16) 분열증자 렌츠는 자신의 신체를 엽록소 기계, 혹은 광합성 기계의 부품으로 사용합니다.

▲ 분열증자는 누구인가

분열증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원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정신분석가의 상담실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책을 할지언정 분석가의 소파에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관과 경찰에 의해 감금시설에 갇힐지언정 제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분석가를 찾지 않습니다.

분열증자는 푸코가 말했듯이 사회적인 규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선험적으로, 진단의학 임상의학이 하는 것처럼 분열증이 도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분열증자 파울 쉬레버

프로이트가 분석한 유일한 분열증자는 다니엘 파울 쉬레버(1842-1912)인데, 그나마도 쉬레버와의 직접 상담이 아니라 자가치료까지 마친 쉬레버의 자서전을 읽고 혼자 해석한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쉬레버는 분열증 상태에서도 명석한 이성을 잃지 않았으며 독일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 당시(1893년) 그는 자신의 항문이 태양광선을 빨아들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태양광선을 머금은 그의 항문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태양광선을 신의 신경망으로 여겼으며 그럴 때마다 엄청난 관능적 쾌감을 느꼈고 그 빛살을 타고 들어온 신의 정자를 잉태하여 나무나 새 혹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태양항문Anus solaire"은 태양광선과 접속하여 자연의 일반적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www.artnstudy.com